# "민주당 vs 다크호스" 5개 구청장 혈전

## 현역 불출마 3곳, 1곳 공천 배제 4곳 무주공산

## 민주당, 19일 컷오프, 5월 초순 최종 후보 확정

## 평화당-바른미래당, 에이스 · 히든카드 영입

6월13일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풀뿌리 지방자치'의 지휘자 격인 5개 구청장 선거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컷오프와 TV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달초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고, 야권에서는 스펙과 경쟁력을 갖춘 다크호스 영입에 주력하고 있다. 본선거 대진표는 이르면 5월 초순, 늦어도 중순께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5개 구청장 경선 후보자 공모에 등록한 24명(평균 경쟁률 4.8대 1)을 대상으로 여론조사(8~9일)와 면접(13, 15~17일)을 거쳐 오는 19일 경선 후보자(컷오프 통과자)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경선 신청자는 동·남·북구 각 4명, 서구 5명, 광산구 7명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와 달리 결선투표제가 없는 만큼 상위 2명을 본경선에 올리되, 2·3위 점수가 현격한 차이가 없을 경우 3명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어 25~27일 케이블TV 토론회를 거쳐 5월3~4일 권리당원 투표 50% +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50%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르면 다음달 5~6일께 5개 구청장 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에서 갈라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소 3명 이상의 구청장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을 목표로 인재영입에 주력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안으로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의당, 민중당은 광주시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올인하고, 구청장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가 무주공산으로 혼전 판세여서 결과는 예측불허다. 북구는 3선 연임 제한, 남구와 광산구는 시장 출마(이후 3자 단일화), 서구는 '음주운전 2회 벌금형'으로 공천이 배제되면서 전체적으로 4곳이나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졌다. 동구는 유일하게 야당 구청장이 재선에 나섰다.

지역별 변수도 적잖다. 동구는 여당이 경선 4파전을 펼치는 가운데 현직은 야당인 민주평화당 소속이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공동대표)과도 당색이 달라 2중, 3중 장벽을 어떻게 뚫을 지 관심사다. 바른미래당이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을 대항마로 내세울 것으로 보여 여당 후보 간 내전과 야당 후보 간 주도권 다툼이 관건이다.

구도가 복잡하다보니 역선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인, 관료, 여성, 청년 등 4인4색의 대결도 흥미진진한 대목이다.

서구에서는 민주당 경선 5파전 속에 평화당 이성일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임우진 현 청장이 음주운전의 덫에 걸려 공천이 배제된 가운데 중앙당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할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남구는 여당 경선이 4파전으로 진행중인 가운데 공천 부적격자와 건강상 이유로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유력 후보 2명의 지지표가 어디로 쏠릴 지, '문재인 정부' 직함 사용에 대한 후보별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할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무소속 후보가 1명 출마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당인 평화당이 후보를 낼런지도 관심사다.

북구는 시의원 출신 3명에 관료 출신 1명, 구의회 의장 출신 등이 맞붙은 가운데 민주당 후보 간 단일화 여부와 시의회 의장 출신 야당주자의 선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고, 광산구는 민주당 경선에만 7명이 나선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력 후보의 거취와 여성후보의 선전 여부, 토박이 후보들에 대한 바닥민심 등이 변수다.

북구, 광산구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주요 후보들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혼전 속 최종 승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워낙 높아 야당의 도전이 녹록치는 않겠지만 히든카드와 에이스 구원 등판도 고려되고 있어 5월 초면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비장한 모습의 야3당**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비장한 모습으로 입장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가치 대변 적임자"

## 광주 남구 광역 · 기초의원 출마자 김병내 예비후보 지지

더불어민주당 광주남구 광역·기초의원 출마자 등은 12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당 소속 남구청장 예비후보인 김병내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 선언은 남구 광역의원에 출마한 배진하, 신다감 출마자, 남구 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황도영 출마자 및 남구 비례의원에 도전한 천신애 출마예정자 및 지병문 전 국회의원 비서 강창용 등 5명이 함께 했다.

남구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남구를 일자리와 경제 중심의 도시, 나아가 서남권 경제발전의 거점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인물을 구청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대변하는 능력 있는 인물이 남구청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낸 김병내 후보가 남구의 발전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남구 발전을 위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김병내 후보의 승리를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 강기정 "친환경차 30만대 유치 일자리 4만개 확보"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2일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차 30만대를 유치해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6기에서 추진하던 완성차 30만대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올해 생산시설 첫 삽을 뜨고, 부품산업 R&D 기반을 확보하겠다"며 "2차년도부터는 완성차공장을 위한 원스톱기술지원센터와 부품공장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만대 친환경자동차 완성차공장을 시작으로 임기내에 30만대 규모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 강 예비후보는 "지역에 있는 대기업을 지키겠다"며 "빛그린산단을 노사 상생모델의 선도적 실험장으로 만들겠다"며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를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 이용섭 "문 대통령 인사 · 안목 부정하는 전두환 부역자 주장 그만"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2일 "5·18과 무관한 전두환 정부시절 청와대 근무경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것은 국정과제를 맡겼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안목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후보 측(강기정 후보 캠프)이 주장하고 있는 전두환 정부시절 청와대 근무는 5·18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사안은 광주시장에 두번 출마했을 때 해명됐으며 2010년도에는 5월 단체 등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다"며 "지난 11일에도 5월 3단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또 "상대후보(강기정 선거캠프)의 주장처럼 전두환의 비서였거나 부역자였다면 혹독한 세번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겠느냐"며 "오직 경선에서 이길 목적의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5·18 당시 광주가 아닌 서울에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며 "1985년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 근무를 했고 사정비서실 2부는 공무원 청렴도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담당했을 뿐 공직자 사정이나 시국사건은 사정 3부나 민정비서실에서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 "센트럴파크-518m 타워" 양향자, 그랜드비전 선포

6·13 지방선거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센트럴파크와 518m 빛의 타워를 골자로 한 그랜드비전을 선포했다.

양 후보는 1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 518m 빛의 타워를 건립하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총 관광수요는 2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표공약인 센트럴파크와 518m 빛의 타워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20조원이 투입되는 부산항 미래비전과 비견되는 획기적인 비전으로 1조4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돼 산업구조가 허약하고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는 광주는 물론 전남, 전북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